

[나와 《길림신문》]

◎ 김혁

약관에서 불혹, 춤사위는 계속된다



저자 김혁

● 1980년대 중국 조선족 사회와 언론계의 변화를 개인의 경험을 통해 생생히 그려내

● 저자의 삶과 언론사의 역사가 교차하는 이야기는 시대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실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내 청춘의 장상은 늘 1986년 초여름을 클로즈업해서 떠올린다. 흰눈처럼 날리는 비슬나무씨, 넘실대는 부르하통하 그리고 강가의 붉은 벽돌집, 그곳은 바로 지금의 연길백산호텔 걸 자리, 금방 고고성을 올린 길림신문사 편집실로 맨처음 발걸음을 디밀던 때의 내 모습이다.

지난 세기 80년대 초반, 전국을 상대로 한 첫 조선족중학생작문콩쿠르가 펼쳐졌는데 나의 작품 한편이 입선되었다. 그때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나는 지도교원 없이 스스로 써서 투고하여 입상했고 홀로 수상대에 올라 상을 수상했다. 유명 시인 김철선생이 내게 상으로 반도체 라디오를 넘겨주었다. 이어 만찬회에서 자작 축하시도 지어 읊었던 내가 신문사 편집들의 인상에 각별히 남았다고 했다.

그 일을 계기로 내 인생의 궤적이 후딱 바뀌게 되었다. 창간 초기의 인원 결핍으로 고민하던 길림신문사에서 파격적으로 나에게 요청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이다. 열아홉에 처녀작을 내고 여러 간행물들에 소설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던 나는 필재가 양양한 문학청년으로 인정받고 일조일석에 신문사 기자로 변신을 했다.

그때 내 나이가 겨우 스무살이었다. 중학교년도 채 나오지 못한 스무살대기가 일약 신문기자로 된다는 것은 그 당시 편집원들이나 결사자들의 경악에 찬 눈초리가 보여주다 싶이 말도 안될 어처구니없는 일이

였다. 조선족 언론사 최연소 기자라는 이 사례는 그 무슨 기네스 기록처럼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고 그렇게 나는 약관의 나이에 길림신문사에 입사했다.

그때 나는 나를 엘리트들이 운집한 언론사에서 필봉을 버리며 당시에 이름을 드날리고 있던 중국의 농촌작가 호연과 같은 대작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뻐물었다.

당시 내게 맨처음 맡겨진 임무가 선배들과 함께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중국작가의 장편소설화 《당산대지진》의 연재를 조선문으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선배들은 일찍 자기 분량의 번역을 마치고 차물을 훌훌 마시고 있었지만 나는 점심도 먹지 못한 채 팔죽땀을 흘리며 번역에 매여있었다. 번역이 늦어져 주임이 결에서 재촉하고 총편집장까지 찾아와 지켜보는데 난 해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 안달아난 나머지 눈물까지 쏟아질 지경이었다. 속

이 없이 룡정촌을 작은 반경으로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 했던 나는 상경한 시골답처럼 쭈뼛거리며 장춘, 길림, 교하, 류하, 통화, 매하구, 구태, 장백 등 성내 여러 지역들을 사철 내내 돌아다녔다.

그 와중에 M 시의 총격사건 현장에서 증계에서 총을 든 홍수와 정면으로 맞닥뜨렸던 공포며, 봉급 해제를 한 훈춘의 방천을 기자로서는 맨 첫 사람으로 취재했던 신비의 순간이며, 선배와 함께 신문 발행에 나서서 왕청의 초췌한 무도장에서 흥겨운 곡조를 연감 끊어버리고 춤꾼들에게 신문 발행을 했던 에피소드며, 매하구에서 귀향하는 기자시간을 놓쳐 역전 부근의 ‘열린편’ (二人转) 극장에서 귀청 때리는 톱상스러운 ‘로골송’을 들으며 나무의자에 포개져 다음 차를 기다리던 긴긴 밤이며, 기자 인생 처음으로 앞은 봉투에서 야금조금 헐어모아 산 사진기를 일주일 만에 통화로 가는

가까운 과정을 통해 나는 생활과 창작에서 어설톱을 뜯 수 있었고 부족한 나의 천성을 다독이며 달랠 수 있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마음 먹으면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접할 수 있는 이른바 ‘1인 저널리즘’ 시대가 됐다. 저널리즘(Journalism)의 어원은 라틴어로서 ‘매일매일 기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자와 작가로서의 병행된 삶을 살아온 나에게는 이 ‘짓거리’가 이젠 일상화되어있다. 이는 또한 어려서부터 내가 동경하고 지향해왔던 바였다.

그렇게 체질화된 신문기자 생활을 못 잊어 나는 아직도 매일매일을 기록한다. 26년 기자생활에서 물러나 직업소설가의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오! 차이나 코리아-일인의 미디어’라는 뉴스성 블로그도 개설했고 지금도 이를 사활에 한판 쏠로 칼럼을 써낸다. 그래서 내게는 ‘칼럼니스트’라는 호칭도 따라붙는다. 저그만치 200여편의 칼럼을 펴냈고 어느덧 이 문단에서 칼럼을 가장 많이 써낸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로서 우리 매체와 문단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길림신문》 칼럼상을 제1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지금은 전직소설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시각까지도 이 장르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사유의 절차탁마(切磋琢磨)는 계속되고 있다.

글 짓는 소설가, 칼럼니스트로서 매양 후배 기자들의 호호와 진미(真味)가 서려있는 신문을 받아볼 때마다 은근한 회열로 땀만해 오르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좋은 기자가 좋은 언론을 만들고 좋은 언론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언제나 유효한 정론이며 우리의 족속들을 위하여 희망의 길을 만드는 일이 미디어의 소명임을 언론인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족 주요 언론사의 간판 명함장으로 부상한 《길림신문》은 어언 40대에 들어섰다. 그만큼 조선족사회에서 그동안 다져온 신뢰와 위상 그리고 향후의 바람도 높다.

공자 말씀에 40세를 불혹(不惑)이라 한다. 더 이상 미혹(迷惑)되지 말아야 할 인생, 세상사에서 헛갈려서는 안되는 나이라는 뜻이다. 40세라는 나이는 사회의 중심에서 당당히 일석을 지켜선 당위의 나이이다. 성숙의 나이이자 더 진중한 자세의 나이이다. 그래서 50세의 ‘지천명’(知天命), 60세의 ‘이순’(耳順)에도 신문의 위상과 웅비를 소명의 춤사위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젠 불혹에 접어든 중후한 신문, 그 매체의 초창기에 서가래를 놓고 초석을 다지는 데 좁은 어깨나마 디밀었다는 데서 들뜬 자부감을 느낀다.

약관에서 초검을마 떴었던 나와 불혹의 언론사, 그리고 어느덧 지천명을 넘기고 있는 나의 춤사위는 오늘도 계속된다...

[전망대]

시즌 마지막 경기, 4连胜? 아니면 신진 단련?



제29라운드 남통지운팀과 연변룡정커시안팀간 경기 한 장면 /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30분에 연길시점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9승 9무 1패, 36점을 기록하고 현재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경도시팀과 2025 화을을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30라운드(마지막 경기) 경기를 펼치게 된다.

중경동량룡팀과 광둥광주표범팀은 반드시 이겨야 슈퍼리그 진출을 확정할 수 있으며 심수청년인팀과 광서평과팀은 갑급 보존을 이루기 위해 필승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고도의 긴장감과 압박으로 불꽃이 타닥 땀다. 반면, 1라운드 앞당겨 ‘4위 쟁취’라는 시즌 목표를 달성한 연변팀은 갑급리그 3개 시즌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가벼운 심정으로 마지막 경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또한 아무런 부담 없는 남경도시팀도 차분한 마음으로 이번 경기에 임할 것이다.

이번 경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연변팀이 마지막 경기(收官之战)에서 신진 선수들을 단련시키는 동시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 홈장 성적 순위 1위를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연변팀은 홈장에서 12승 1무 1패로 37점을 기록하며 홈 성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료녕철인팀은 홈장에서 10승 4무로 무패행진을 이어오고 있지만 34점으로 2위에 머물고 있다. ‘마귀홈장’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연변팀이 마지막 경기를 이긴다면 더욱 좋겠지만 비길 경우에도 홈 성적 1위를 지키는 만큼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지난 2024 시즌의 마지막 경기 역시 홈장에서 치러졌는데 상대는 불산남사팀이었다.

당시 홈장승을 거두지 못한 선수와 팬들의 안타까움을 달래기 위하여 감독 이기형과 선수들은 훈련에 열정을 쏟았으나 최종적으로 0:1로 패배하게 되었다. 이미 갑급보존이 확정된 상태라 축구팬들은 너그럽게 결과를 받아주었으나 아쉬운 마음은 감출 수 없었다.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 12차의 승 기회가 있었지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하에 긴장감과 조급정서가 생기면서 선수들의 발휘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번 시즌 내내 홈장, 원정을 이어가며 열정적으로 응원해준 축구팬들에게 보답하는 가장 멋진 값진 선물은 두말할 것 없이 승리이다. 연변의 팬들은 올 시즌 12번의 승리의 희열을 안겨준 이기형 감독과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다양한 방식으로 축하했다. 다음 시즌에도 전통 축구와 독특한 민족문화가 어우러진 연변의 축구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로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남은 경기에서 두 팀은 다음 시즌을 위한 신진 선수의 단련과 경험 쌓기를 주요 목표로 삼을 것이며 외적 용병 없이 본토 선수들만 출전할 가능성도 있어 흥미로운 경기가 기대된다. 따라서 연변팀의 감독진과 선수들이 잘 준비하여 팬들에게 오래오래 을 미칠 수 있는 정채롭고도 의미 있는 마지막 경기를 선물할 것으로 믿는다.

/ 김태국기자

료양시조선족학교, ‘교장컵’ 축구대회서 우승

최근 료녕성 료양시교육국 직속 초·중·고 제1회 ‘교장컵’ 축구대회가 료양시사범부속소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결승전에 진출한 료양시 조선족학교(료양시제9중학교 소학부)와 사범부속소학교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료양시조선족학교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료양시조선족학교는 학생들의 축구 실력 향상에 주력해왔다. 학생들은 체육시간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에도 축구 연습에 매진하며 열정을 보였다. 지난 2021년 3월, 료양시당위 통정부는 료양시조선족학교를 료양시 소수민족학교 축구훈련기지로 선정하고 간판을 수여했다.

/ 료녕신문

